

ISSN 2765-3005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 ISSUE PAPER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Vol. 6

2021. 1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원실 주무관 지식정보서비스과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6호

발행일 2021년 10월 29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799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www.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 I. 도서관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02

### II. 국외 사례 03

1. 싱가포르
2. 미국
3. 핀란드

### III.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09

### IV.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방안 11

1. 법·정책적 기반 마련
2. 도서관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인식 제고

### 참고문헌 15

#### | 주요 키워드 |

디지털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도서관이용자교육

#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원실 주무관 지식정보서비스과

## 요약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행태는 다양화 되었으며,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고 메시지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미디어 속 메시지의 허위정보는 ‘악성 정보 확산(infodemic)’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큰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미디어 과몰입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시민성의 부재 등 역기능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하고 건강한 접근을 제공하는 기관이자 시민의 정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메시지를 분별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도하는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위 3개국은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협회, 교육문화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① 법·정책적 기반 마련, ② 도서관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③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인식 제고를 제안하였다.

**주요 키워드** 디지털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 도서관이용자교육

## I. 도서관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오늘날 시민들이 미디어와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양한 미디어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미디어 메시지 속에 담긴 허위정보와 미디어 과몰입,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혐오와 차별 표현을 포함한 디지털 시민의식 부재 등 역기능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허위정보는 바이러스만큼 큰 전염성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3월 사이 가짜뉴스로 인해 전 세계에서 최소 800명이 사망하는 등 온라인상 허위정보의 파급력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조승한, 2020). 이러한 허위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은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였으며(차미영, 2021), 개인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미디어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도서관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간으로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시민의 정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기여해왔다.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은 1970년 초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였으며, 사서들의 이용자 교육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Badke, 2009). 이처럼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교육 플랫폼으로서 시민에게 건강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의 사명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은 UN 2030 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시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한 보편적인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 세계의 정부와 도서관이 모든 연령대와 모든 수준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IFLA 2018a; 2018b). 이는 곧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메시지를 분별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로서 사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20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한국형 비전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포함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을 활용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하는 책무도 강조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디지털 소양과 미디어·기술의 활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디지털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과 협력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전국 공공도서관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사업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고는 도서관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미국, 핀란드 3개국의 교육 추진체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2년간의 국립중앙도서관 리터러시 교육 운영 현황을 제시한 뒤,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II. 국외 사례

### 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다양한 문화·인종·언어·종교적 배경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들이 허위정보로부터 더 쉽게 영향을 받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Pek & Wang, 2018). 2018년 싱가포르 국회의 선언문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성숙한 태도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인 역량으로 주창되었다(Parliament of Singapore, 2018b).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NLB)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Parliament of Singapore, 2018a).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으로서 S.U.R.E.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S.U.R.E. 캠페인은 ‘정보원(Source)’, ‘이해(Understand)’, ‘연구(Research)’, ‘평가(Evaluate)’의 두문자어로 각각 개인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유념해야 할 4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정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개념이다. 각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고(Source), 둘째, 정보원을 이해하고 의견보다는 사실을 찾으며(Understand), 셋째, 다양한 정보원을 검색하여 내용을 비교하고(Research), 넷째, 다른 관점에서 정보를 살펴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Evaluate)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S.U.R.E. 캠페인 개요와 4가지 구성요소

출처: S.U.R.E. ([https://sure.nlb.gov.sg/infographic/NILB\\_AboutUs\\_A2\\_FA%20\(Revised\).pdf](https://sure.nlb.gov.sg/infographic/NILB_AboutUs_A2_FA%20(Revised).pdf))

초기의 S.U.R.E. 캠페인은 토론회, 순회 공개방송 등 일반 대중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한 교과과정 반영 등 특정 집단을 위한 대상별 캠페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운영진은 약 5년간의 운영 결과를 통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Pek & Wang, 201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 이르러 S.U.R.E. 2.0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대상별로 다른 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받는 학생(S.U.R.E. for school)과 직장인(for work), 중장년을 비롯한 일반 성인(for life)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내에서는 전자자원이나 모바일 앱, NewspaperSG<sup>1</sup>, Singapore Infopedia<sup>2</sup> 등과 같은

1 NewspaperSG: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디지털화 신문을 제공하는 아카이브

2 Singapore Infopedia: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발간하는 싱가포르에 관한 역사, 문화, 예술, 경제, 정부, 인물 등에 관한 전자 백과사전

도서관 서비스의 가이드를 제공한다(Dresel et al., 2020). 또한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디지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National Digital Media &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등 다양한 국가 정책과 궤를 함께하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2019).

지난 3년간 25,000여 명의 이용자가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수강생이 증가하였다(Sagar, 2021). 2021년 제공된 ‘S.U.R.E. Skills’ 시리즈는 일반 성인 대상(3차시)과 고령층 대상(4차시)으로 차시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영상과 이미지의 진위 여부 판별, 팩트체크, 딥페이크 자료 분별하기 등이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동향 관련 강연 프로그램인 ‘My Digital Life’ 시리즈의 ‘교육의 미래’, ‘온라인 허위정보’ 등 프로그램 강연자에게 S.U.R.E. 1기 콘텐츠를 학습 내용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정보 리터러시 요소를 적용하였다. S.U.R.E.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는 다른 정부기관과 민간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으로서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려면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이 훌륭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Wang, 2021).

## 2. 미국

미국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교육, 언론인 또는 미디어 전문가를 초빙한 세미나, 자녀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학부모 대상 교육, 컴퓨터나 인터넷 기술·소프트웨어·스마트폰의 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정영미, 2018; 정현선 외, 2020).

여기에서는 개별 도서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와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도서관협회의 ‘당신의 도서관에서 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at Your Library)’ 시범 프로젝트는 공공도서관 사서가 성인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시민에게 역량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사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미국 스톤브룩(Stony Brook)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News Literacy, 이하 CNL)와 협력하여 추진되었다. 오번공공도서관(Auburn Public



Library) 등 미국 5개 공공도서관 사서가 참가하여 CNL에서 제공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총 28개 프로그램을 통해 900여 명의 성인 이용자를 교육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도서관협회와 CNL은 사서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였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8).

이후 미국도서관협회는 2020년 11월 「Media Literacy in the Library : A Guide for Library Practitioners」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5대 영역을 ‘인터넷의 구조(architecture of the internet)’, ‘시민의식(civics)’,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과 경제(media landscape and economics)’, ‘오보와 허위정보(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미디어 창작과 참여(media creation and engagement)’로 정의하고, 영역별로 사서와 이용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 학습자료 등을 수록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5개 영역별 필수개념과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 ALA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라인 제공 핵심 영역별 필수 개념 및 가이드

영역	필수 개념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인터넷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키</li> <li>• 알고리즘</li> <li>• 정보 여과 현상(filter bubbles)</li> <li>• 확증편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키 101</li> <li>• 정보 여과 현상(filter bubbles)</li> <li>• 누가 당신의 인터넷 행동을 관찰하는가?</li> <li>• 개인정보와 기업정보</li> </ul>
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지대(safe spaces)</li> <li>• 뉴스 소외지역(news deserts)<sup>3</sup></li> <li>• 시민교양(civility)</li> <li>• 아이디어의 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저널리즘</li> <li>• 시민 대화</li> <li>• 시민 리터러시</li> <li>• 참정권</li> <li>• 알 권리, 또는 정보공개법 청원</li> </ul>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과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인의 부재(disintermediated)</li> <li>• 갈등이 없는 정보 제공(frictionless)</li> <li>• 컴퓨터 알고리즘</li> <li>• 경계의 모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정보 검색과 활용</li> <li>• 온라인 미디어 메시지의 제작과 공유</li> <li>• 알고리즘 따라가기 활동</li> <li>•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성</li> </ul>
오보와 허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여과 현상(filter bubbles)</li> <li>• 악성 정보 확산(infodemic)</li> <li>• 언론 조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짜뉴스의 역사</li> <li>• 온라인 사기를 위한 소셜미디어와 기술 도구</li> <li>• 현명한 정보 소비자가 되는 방법</li> <li>• 건강 관련 오보와 허위정보</li> </ul>
미디어 창작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창작의 동기</li> <li>• 미디어 창작 기술의 사용성</li> <li>• 미디어 관련 윤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팟캐스트, 블로그, 비디오 블로그, 디지털 스토리텔링 관련 워크숍</li> <li>• 지역 미디어 관계자 초청 토론회</li> <li>•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 찾기</li> <li>• 기술 체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li> <li>• 학교 신문 또는 지역 접근 채널</li> </ul>

출처: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20) 재구성

3 지역별 신문이 쇠퇴함에 따라 일간지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게 된 지역(출처: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신어사전)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 2021년 미국도서관협회는 위 가이드라인의 활용에 대한 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실무자 대상 화상 토론회를 6회에 걸쳐 제공하고, 학습자료를 공개하였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1).

이외에도 본 가이드라인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이 필요한 이용자는 해당 주제의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거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지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대화(예: “딥페이크<sup>4</sup>와 셸로우 페이크<sup>5</sup>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를 시작하거나, 기술 및 미디어 활용 교육 같은 기존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시사점(예: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제공하는 요소들을 프로그램 내용에 자연스럽게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3. 핀란드

2021년 유럽 35개국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평가조사 결과, 핀란드는 미디어 리터러시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78점)로 나타났다(Open Society Institute Sofia, 2021). 이처럼 언론 신뢰도가 높은 핀란드는 일찍이 1960년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인 시르쿠 코티라이넨(Sirkku Kotilainen) 교수(탐페레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는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발전 배경의 요인으로 오랜 식민 통치의 역사를 들었다. 스웨덴과 러시아의 식민통치 시절, 핀란드의 신문은 정부기관의 선전지로 기능하였고, 시민들이 신문 기사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수백 년의 신문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심미선, 2017).

현재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가시청각연구소와 핀란드미디어교육협회 두 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어린이 및 청소년·미디어·문화 관련 정부부처, 협회, 비영리단체, 도서관, 학교, 공영방송국 등 여러 기관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표 2〉 참조).

4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 이미지와 영상 등을 조작 및 합성하는 기술

5 셸로우 페이크(shallow fake): 딥페이크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간단한 영상 편집 도구를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조작하는 방법

〈표 2〉 핀란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분야별 참여기관

분야	참여기관
정부기관	교육문화부, 디지털인구데이터서비스청, 국립시청각연구소, 국가교육위원회
민간기관	미디어, 기술, 게임, 산업 분야, 공공-민간 협력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종합학교(의무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영화문화미디어센터
미디어 분야	공영 및 민간 미디어, 대중매체위원회
청년 활동	지방자치단체, 청년디지털지원센터(Digital Youth), NGO, 교회 등
제3부문	비정부기관, 자원봉사 기구

출처: 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https://mediakasvatus.fi/english/>) 재구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핀란드의 도서관은 학교와 사회, 가정을 연결하는 광장 역할을 한다. 또한 도서관 사서는 지역사회 내 학교 및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종 미디어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논의와 연구에도 참여한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은 기본적인 문해력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 탐색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까지 포함한다(정현선 외, 2020).

또한 「공공도서관법(Laki yleisistä kirjastoista)」에 시민을 위한 도서관의 정보 가용성 및 활용성, 다양한 리터러시와 적극적 시민성 증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제고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6). 핀란드도서관협회에서는 2014년 교육문화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공공도서관 미디어 교육 : 권장사항 및 지침(Mediakasvatus yleisissä kirjastoissa : suosituksia ja suuntaviivoja)」을 발간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2019).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역도서관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공과 학교도서관과의 연계 방안,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도서관은 집, 학교에 이어 제3의 공간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학습과 경험의 장소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서관은 핀란드의 전 사회 영역에서 통합된 미디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교육 주체인 학교, 지역 내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핀란드의 공공도서관은 체계적인 서비스와 도서관 네트워크, 그리고 도서관을 통한 시민들의 선진적인 독서 문화를 자랑하는 반면 학교도서관의 환경은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Ojaranta, 2015). 이러한 맥락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핀란드 도서관은 국가정책 담당자, 미디어 교육 전문가, 연구자, 협회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가들과 민-관-학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디지털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까지 총 23,797명의 이용자가 수강하였으며, 2021년에는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좌를 포함하여 16개 강좌(55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도서관 영상 스튜디오 이용 방법과 웹 DB 등 도서관 정보원 활용 방법, 고령자와 다문화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영상 및 문서편집, 스마트폰 활용, 북트레일러와 전자책 제작 등 도구 활용 중심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 등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추어 도서관 이용자가 디지털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갖추고, 디지털 소양과 역량을 겸비하여 미디어와 기술을 분별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성을 두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2020. 9.),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1. 7.)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연구과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와 캠페인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2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표 3>과 같다. 2021년 10월 기준 현재 7개 과정을 24회차에 걸쳐 운영하였다. 학부모와 직장인, 청년 등 교육 수요가 높거나 확대가 필요한 집단을 설정하고, 자녀 미디어 교육 지도, 직무에서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업 기획과 홍보 등 과업과 활동에 적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해 3-12회차로 구성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디지털 예절과 저작권 기초 지식 등 디지털 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1회차 특강 형식으로 2회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대다수 차수는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였으며, 수강생들이 토론과 소그룹 활동 등 쌍방향 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협업과 소통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표 3〉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2020-2021년)

운영 월	프로그램명	차수	교육 내용
2020. 9.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시화 만들기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인에게 배우는 시 창작</li> <li>•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시화와 시낭송 영상 제작</li> </ul>
2020. 11.	디지털 시민교육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건강한 디지털 시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큰 디지털 세상의 시민이 되는 길</li> <li>• 디지털 세상에서 지킬 것과 공유할 것</li> </ul>
2020. 12.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사회에서의 표현의 책임</li> <li>• 디지털 감사 에세이 제작</li> </ul>
2021. 5.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아카데미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 리터러시 원리(미디어 메시지의 생산 배경, 편견과 차별, 관점과 목적)</li> <li>• 유튜브 리터러시</li> <li>• 자녀 미디어 교육 지도법</li> </ul>
2021. 5.	디지털 시민을 위한 저작권 특강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의 보호 및 활용, 저작물 이용시 주의할 점</li> <li>• 자유이용 저작물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의 개념과 활용</li> </ul>
2021. 6.	직장인을 위한 빅데이터 아카데미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li> <li>• 데이터 설계, 분석, 시각화 방법</li> </ul>
2021. 7.	청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아카데미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li> <li>• 나만의 창업 · 창작 아이템 발굴</li> <li>•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기획</li> <li>• 디지털 미디어 홍보 전략 수립</li> </ul>

국립중앙도서관은 문서와 영상 편집 기술 등을 과업이나 활동과 연계하여 중장년과 직장인 등 대상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는 점과 디지털 시화와 감사 에세이 제작 등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연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앞선 국외사례와 다른 특징이다. 반면, 정보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미비한 부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아카데미' 과정의 학습 내용을 미국도서관협회의 가이드라인 내용과 비교해보면 '오보와 허위정보' 영역과 과학상식 채널 운영 유튜버 초청,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 찾기 등 '미디어 창작과 참여' 영역, 그리고 일부 정보 여과 현상에 관한 '인터넷의 구조' 영역 등 메시지의 생산 원리와 배경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부모 수강생의 요구가 큰 '자녀 미디어 교육 지도법'을 1회차로 별도 구성하였다. 한편, '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었으며 향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영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Ⅳ.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방안

### 1. 법·정책적 기반 마련

도서관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공 의무를 법과 정책에 명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제2조), 도서관의 리터러시 교육과 연관성을 나타내는 조항으로는 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책무로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의무(제43조)”와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의무(제38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나 유관 개념인 디지털 역량, 디지털 포용, 미디어 문해력 등과 같은 개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는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라는 전략에 “정보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맥락 이해 문해력 교육 개발 및 보급과 미디어 활용 교육 개발 및 교육 강화”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등의 체험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수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핀란드 공공도서관법에는 시민의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격차 해소라는 다소 제한적인 범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성을 기르는 것이 도서관의 의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의 법령과 다른 점이다. 향후 「도서관법」에도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인 도서관을 통해 디지털 민주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국내 미디어 교육기관에서 발간한 대상별 미디어 교육 지침서 등 가이드라인은 일부 찾을 수 있다. 한편, 해당 가이드라인은 내용 측면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 중에서도 ‘미디어 환경의 이해’와 ‘미디어 콘텐츠의 올바른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루는 매체 유형 측면에서는 뉴스와 신문 등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건강한 접근을 제공하고, 미디어 속 메시지에 담긴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증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에 특화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위 가이드라인에는 앞의 국외 사례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안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공공도서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도서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내년 초에는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발간된 UNESCO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sup>6</sup> 교육 커리큘럼(제2판)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 :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현명하게 클릭하기!(Media and Information Literate Citizens : Think Critically, Click Wisely!)』를 국내 도서관 현장에 적용하여 사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예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모형을 보급하고, 건강한 디지털 소통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도서관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2021년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에서 싱가포르국립도서관의 S.U.R.E. 프로그램 운영자인 Wang(2021)은 국가차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품질이 훌륭한 콘텐츠 개발을 언급하였다. 콘텐츠 품질을 높이고, 차별성과 활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민-관-학이 협력하여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의 ‘당신의 도서관에서 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at Your Library)’ 시범 프로젝트에서와 같이 대학과 연계 시, 도서관은 이용자 대상 교육과정과 교육 성과 평가 도구를 비롯해 사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교수설계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학의 연구진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교육 현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추진하는 교육의 학술·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전문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도서관은 정보 리터러시의 이론적 토대 아래에 디지털 기술의 속성을 반영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를 추가하여 미디어 속 메시지를 분별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도서관에서 개발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사례들을 논의의

6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충위가 다양한 미디어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환경을 이해하고, 미디어 속 정보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해·감상·평가·이용·창작·공유할 수 있는 지식, 스킬, 태도가 포함된 역량(박주현, 강봉숙, 2020)



장을 마련하여 공유한다면 우수 사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서관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콘텐츠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교육 콘텐츠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미국 공공도서관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 PLA)의 'Digital Learn'<sup>7</sup> 사례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 활용에 관한 반복적인 기초 질의에 대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기존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개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텐츠의 품질이 확보된다면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는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다른 정부부처나 민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인식 제고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내 유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과 타 부처 및 기타 민간 기관과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단일 도서관 내에서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 등 매체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평가하는 핵심 원리에 대한 교육 콘텐츠와 연계하여 뉴스 등 시사정보 DB 활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교육과정에서 창작자가 신뢰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신뢰성 평가 등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도서관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은 긴밀히 연계하여 소외되는 대상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국가도서관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법·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관적인 교육 정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 도서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개발과 운영을 위한 도서관 사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도서관 리터러시 교육의

7 Digital Learn: 컴퓨터와 인터넷, 모바일 사용 등 디지털 미디어 기술 활용 학습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https://digitallearn.org>)



주체로서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개별 도서관에 가이드라인이나 교육과정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공모를 거쳐 일부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개선 사항을 정규 과정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국내 도서관계에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등의 행사를 지역 특성에 맞게 미디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개발 및 운영하며, 핀란드의 사례에서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자유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교과과정의 영역을 서비스 범위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타 부처 및 민간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협력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학교 정규 교과과정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등 타 부처의 국가 정책 및 추진 과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 적용해본다면 범부처 민관협의체인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협의체’<sup>8</sup>에 참여하는 등 종합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도서관 리터러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배움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의 미디어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기관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일관적인 맥락을 가지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국 ‘Authors Aloud UK’<sup>9</sup>의 사례와 같이 작가와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의 창작가, 출판인, 기자와 PD 등의 콘텐츠 제작 직업군과 연계하여 캠페인 등의 행사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대중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8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협의체: 2020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이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된 범부처 민관협의체

9 Authors Aloud UK: 영국 지역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문인 및 창작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연계 프로그램(<https://authorsalouduk.co.uk>)

## 〈참고문헌〉

- 박주현, 강봉숙 (2020).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과 교육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23-250. <http://dx.doi.org/10.16981/kliiss.51.3.202009.223>
- 심미선 (2017. 12.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국 핀란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리터러시. [인용일 2021. 10. 4.]. 출처: <https://dadoc.or.kr/2564>
- 정영미 (2018). 미국 공공도서관의 성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359-380.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1.359>
- 정현선, 심우민, 윤지원, 김광희, 최원석 (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승한 (2020. 8. 13.). 코로나19 가짜뉴스로 1~3월 사이 800명 숨졌다. 동아사이언스. 출처: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9006>
- 차미영 (2021. 8. 18.). 국제 사회는 허위정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동아사이언스. 출처: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48806>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of Finland (2019). Media Literacy in Finland : National Media Education Policy. 최원석 옮김 (2020).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 국가 미디어 교육 정책.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8). Media literacy @ your library : learning and prototyping report.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sites/ala.org.tools/files/content/Media%20Literacy%20%40%20your%20library%20-%20Final%20Report%20Dec%202018.pdf>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Media literacy in the library : a guide for library practitioners.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sites/ala.org.tools/files/content/%21%20FINAL%20Media-Lit\\_Prac-Guide\\_WEB\\_040521.pdf](https://www.ala.org/tools/sites/ala.org.tools/files/content/%21%20FINAL%20Media-Lit_Prac-Guide_WEB_040521.pdf)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1). Media literacy education in libraries for adult audiences. Retrieved September 26, 2021, from <https://www.ala.org/tools/programming/MediaLiteracy>
- Badke, W. (2009). Media, ICT, and information literacy. Online, 33(5), 47-49.
- Dresel, R., Henkel, M., Scheibe, K., Zimmer, F. & Stock, W. (2020). A nationwide library system and its place in knowledge society and smart nation : the case of Singapore. Libri, 70(1), 81-94. <https://doi.org/10.1515/libri-2019-0019>
- Finnish Society on Media Education. Retrieved October 4, 2021, from <https://mediakasvatus.fi/english/>
- IFLA (2018a). Access and opportunity for all : how libraries contribute to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Available: <https://www.ifla.org/resources/page/2/?oPubId=10546>
- IFLA (2018b). IFLA statement on fake news.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bitstream/123456789/1239/1/ifla-statement-on-fake-news.pdf>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6). Public libraries act (1492/2016). Available: <https://www.finlex.fi/en/laki/kaannokset/2016/en20161492.pdf>
-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2019). About the SURE campaign. Retrieved September 26, 2021, from <https://sure.nlb.gov.sg/about-us/sure-campaign>
- Ojaranta, A. H. (2015). A phase between two national core curricula in Finland : what are the implications to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nd library collection?. Paper presented at: IFLA WLIC 2015 - Cape Town, South Africa in session 101 - School Libraries.
- Open Society Institute Sofia (2021. 3. 14.). Media literacy index 2021. Retrieved September 26, 2021, from <https://osis.bg/?p=3750&lang=en>
- Parliament of Singapore (2018a). Select Committee on Deliberate Online Falsehoods, National Library Board, written representation no. 40. Available: <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sconlinefalsehoods/written-representation-40.pdf>
- Parliament of Singapore (2018b). Select Committee on Deliberate Online Falsehoods, Asia Internet Coalition, written representation no. 119. Available: <https://www.parliament.gov.sg/docs/default-source/sconlinefalsehoods/written-representation-119.pdf>
- Pek, S. & Wang, D. (2018/2019). National Library Board's public education on information literacy : teaching citizens to fight fake news. Singapore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47, 2-14.
- Sagar, M. (2021. 3. 4.). Singapore's National Library Board plans to transform libraries into digital learning hubs. Opengov Asia. Retrieved September 26, 2021, from <https://opengovasia.com/singapores-national-library-board-plans-to-transform-libraries-into-digital-learning-hubs/>
- Wang, D. (2021). Libraries enable news literacy : finding solutions to fake news. Presented at: IFLA WLIC 2021 in news media section. <https://www.ifla-wlic2021.com/events/sessions/libraries-enable-news-literacy-finding-solutions-to-fake-news>